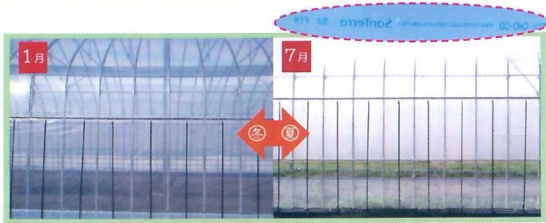


차광도포제 필요 없이~ 저온기 아침엔 투명, 고온기인 낮엔 불투명해져 쾌적한 온실 환경조성

조광필름 덕분, 벌 수정률 향상으로 기형과 없이 고품질 딸기생산 가능

“딸기 연속 착화 및 수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정 벌 하우스 내 최적의 온도 환경조정으로 벌의 활동성 및 수정률 증가에 카멜레온 조광필름이 톡톡히 제 몫을 하더군요.”



저온기인 겨울이나 아침엔 투명해서 광 투과가 뛰어나고 고온기인 여름이나 낮엔 불투명해서 온도 하강으로 쾌적하게 하는 카멜레온 조광필름.



◀ 기형과가 발생한 모습. 과 1개당 16g 이상이라도 공선에서 제외되어 딸기잼용으로 할값에 팔린다고.



◀ 최적의 온도 조성이 가능한 조광필름 덕분에 수정 벌 활동이 왕성해져 대부분 정상과 생산 가능한 모습.

첫 번째 박진순 참외 명장, 두 번째 심상환 시설 고추 ICT 융복합 현장교수, 이번이 세 번째 산청 딸기명인을 만나러 가는 날, 설렸다. 며칠 전부터 구포역에서 만나 산청으로 출발하자고 (주)ARTS 김영호 영업이사과 굳게 약속해두었기에... 서둘러 준비해서 나갔다. 2월 1일 아침, 부산과 김해 등 수년 만에 큰 눈으로 온천지가 새하얗다. 좋은 징조였다. 눈 때문에 조금 막힐 줄 알았는데 산청까지 급세 닿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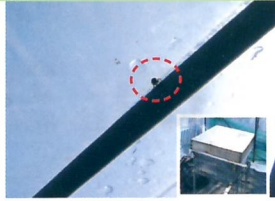
산청 역시 지리산자락이라 세찬 눈바람이 먼저 반갑게 맞아준다. 역시 딸기란 이런 곳에서 재배해야 제맛이 난다며 얘기 중에 먼발치에서 김병규 씨가 마중을 나왔다. 작년 10월 11~13일 (주)ARTS PO필름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같이 참가하여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농업 관련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 불현듯 떠올랐다. 꼭 농장 방문을 해달라고 한 것까지...

한데 이렇게 딸기 하우스로 가득 찬 주변에서 김병규 씨 딸기명인 농장을 찾기로 쉽지 않은데, 그 수고를 덜어주어 고마웠다. 춥다며 농막 안으로 안내하고 커피를 건넨다. 따뜻한 미소와 한잔의 차가 온 몸을 녹인다. 대충 수인사 후 명함을 요청하자, 두류농산 대표이사 직함 찍힌 명함을 주면서 공동선별하려고 영농조합을 만들었다가 올해 초 그만두었다고 참고만 하란다. 산청 시천면 이 지역 역시 덕산딸기연합회에 가입, 공동선별(이하 공선)하고 있지만 농가 각자의 이해득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하소연을 한다.

이제 딸기취재에 대해 더 집중한다. 왜? 공선이 어려운지에 대해 묻자, 딸기 1개당 최소 16g 이상 되어야만 포장 선택할 수 있고 무른 것은 안되며 특히 기형과는 더더욱 선별 1순위라고. 그러면 선택되지 못한 딸기는 어떻게 되는지 묻자,



조광필름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고품질 다수확 딸기 포장.



한 낮의 높은 온도 때문에 벌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하우스 천장에 부딪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. 조광필름 피복은 실내에는 이런 현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. 원내는 수정 벌통.



고설딸기의 가장 중요한 관리 중의 하나인 적절한 온습도 유지를 위해서 향후 조광필름으로 모두 교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병규 씨. 디지털 온습도계 점검은 물론 간접적으로 물통의 길 표면에 맞히는 물방울의 습기를 보고 환기창 개폐를 결정하는 철저한 일면도 파악할 수 있었다.

전부 딸기잼용으로 가는데 1kg 700원선으로 아주 헐값에 거래된다면서... 그래서 공선에 딱 맞는 고품질 딸기 생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되지 않으므로, 딸기 생산 내내 이 농막에서 딸기와 함께 동고동락해야 하는 어려움을 김병규 씨가 토로한다.

“진짜 딸기농사 어렵습니다. 11월 중순 첫 수확 후 이듬해 1월 중순~2월 초까지 2화방, 3월 초순 3화방.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화방 당 4개 정도만 착과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적과해주어야만 1개당 최소 16g 이상 생산이 가능하거든요. 일일이 전부 적과해주어야 하니,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만 그나마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” 딸기명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! 하는 생각에 딸기 맛이 씹쓸해졌다.

저온인 아침엔 투명, 고온인 낮엔 불투명해져 최적의 수정 벌 활동 환경조성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 O.K

2006년부터 825㎡ 6동에서 딸기재배를 처음 시작한 김병규 씨. 처음엔 장수필름을 피복하여 딸기농사를 짓다가, 고품질 생산을 위해 2014년 광 투과가 획기적으로 뛰어난 PO필름 크린알



파(0.1mm)를 사용하였고 또 다시 2016년 10월경 3동만 조광필름(0.1mm)으로 교체하였다고. 그 이유인즉 2월부터 차광제 도포를 해야지만 벌 활동 및 수정률이 좋아져 기형과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나 차광제 도포 및 제거에 각각 1동당 7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. 취재 말미에 딸기 명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끄집어내며 이렇게 마무리한다. “그래서 조광필름으로 교체했지요. 2월엔 한낮에도 뜨겁거든요. 좌우 개폐를 해두면 바람 영향으로 또 잘 활동하지 않고 문을 닫아두면 답답하고 뜨거워서 그런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비닐로 돌진해서 탈출하려다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... 조광필름 피복 이후엔 벌의 이상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쾌적해서 그런지 벌 수정 활동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. 결국 이것은 벌 수정이 원활해져서 기형과 생산은 줄고 정상과 고품질 딸기 생산이 가능함을 뜻합니다.”

조광필름은 20여년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PO필름 전문업체인 (주)ARTS(대표 정두석, www.arts21.co.kr)가 수년간 연구 개발해 온 일본 스미토모화학에서 제품화한 것을 직수입하여 8년 전부터 공급하고 있다. **농원**

◀ 현장에 답이 있음 주장하며 3번의 기획취재 내내 자리를 꿰뚫어 지키면서 항시 점검에 점검을 하고 있는 (주)ARTS 김영호 영업이사(사진 오른쪽)와 (주)ARTS 산청 진주영업담당을 하며 제대로 된 농사짓기에 합당한 고품질 필름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(주)신성 강호동 영업소장, 김병규 씨가 자리를 같이 했다.